



Digital세상의 주목받는 직업군 르네상스 칼라

이재철

(주)링크인터내셔널 과장
jae1023@linklink.com

링크인터내셔널에서 IT분야 홍보를 1년6개월 정도 담당하고 있다. 취미는 농구, 스키, 드라이브 등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질(?) 한다. 특기는 IT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기획기사 쓰는 것,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등 다재다능(?)하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직 충격! 관심은 사람 소개해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공부 잘 하면 의사,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에 젊음을 보낸 본인으로서 요즘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뭐니뭐니해도 정보통신 업계에 인재들이 몰리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IT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세대별로 구분되는 직업군

산업혁명을 이끌던 세대는 블루칼라였다. 생산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노동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1세대 직업군이라 할 수 있다. 하얀색 와이셔츠가 상징인 사무직은 화이트칼라이다. 어릴 적 학교에서 새 학기 가정조사 시간에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던 것이 '회사원'이었던 것 같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등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이들 화이트칼라는 2세대 직업군이라 불린다. 3세대 직업군은 창의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집단을 일컫는다. 기자, PD, 광고, 영화계 종사자 등을 일컬어 골드칼라라고 한다. 이른바 쟁이 집단이라고 한다. 골드칼라는 또한 다른 직업군을 대변하기도 한다. 주로 경영학과를 나와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과 증권사, 투자신탁, 종금사 등의 제2금융권에 종사한다. 안정된 직장고 고액 연봉, 고급인력으로 대변되는 이들은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 이 사회의 동량들이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적응 여부가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이때 네트워크란 물리적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함께 말한다. 네트워크에 능한 세대가 바로 다이아몬드 칼라이다. 이들이 바로 제4세대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쪽의 뾰족한 각을 중심으로 상부에는 여러 방향의 방사형으로 뻗어 있다. 이들은 한가지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른 분야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적 지식과 사회성이 잘 결합된 형태인 셈이다. 정보통신 업종에서는 이들이 인기를 모았다.

인터넷 시대의 직업군

그런데 요즘 인터넷업계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은 르네상스 칼라이다. 르네상스 맨이라고 하면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등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르네상스 칼라도 비슷하다. "All Round Player"를 원하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요즘 인터넷 업계에서는 정보통신에 일찍부터 관련한 토박이들 보다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좀더 다채로운 경력을 닦은 사람을 요구한다. 기존의 업무환경이 인터넷으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칼라의 생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증권회사나 은행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벤처캐피탈 리스트로 전환하고 있으며, 광고회사의 AE들은 인터넷 기업의 마케팅과 기획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현재 IT업계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직과 퇴사가 없기로 유명한 일간지에서도 최근 팍스넷, 머니투데이등 전문정보 온라인 매체에 일간지 출신 기자들이 대거 몰려 화제가 됐다. 이 밖에도 신문사나 잡지사 기자들은 콘텐츠 기획과 홍보에서 주기를 높이고 있고 방송국PD들은 최근 인터넷 방송의 붐을 타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새 동지를 트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새롭게 르네상스 칼라에 편입되고 있는 경우이다.

인터넷업계에서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은 컴퓨터 실력보다는 창의력과 순발력이 그 어느 곳보다도 요구되는 곳이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신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격변하는 세상과 몸으로 부대껴 온 이들, 그리고 그 변화를 자신에게 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르네상스 칼라라고 이들은 디지털 시대를 헤쳐 나갈 힘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래 세상의 주역이 되리라 생각된다. **KCRC**

